

광주 미분양 급증속 전세난 조짐

지방 주택시장이 미분양 급증 등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남구 등 일부 인기 지역은 전셋집 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인 73%를 넘어선 데다 비수기인 2·4분기에도 일부 지역의 전세가격이 꾸준히 높아지는 등 '소리없는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광주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중은 73.5%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72.5%)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전국 평균(54.5%)은 물론, 6대 광역시 평균(63.5%)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광주의 전세가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 수요자들이 전통적으로 매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 73%..전국평균 크게 웃돌아 수요자 전·월세 선호... 남구 봉선동 1년새 4.4% 올라

매보다 전·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내집 마련'을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는 전세시장에서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올 들어 남구와 서구의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해 말보다 각각 3.9%, 0.9% 상승한 사이 동구와 북구는 각각 0.2%, 0.1% 하락했다. 이같은 지역별 격차로 인해 같은 기간 광주 전체의 전세가율은 표면상 소폭 상승세(0.7%)에 그쳤다.

하지만 남구는 봉선동과 진월동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

면서 1년간 상승폭이 4.4%에 달할 만큼 전세 폭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지역 내 전세물건 출회가 많지 않은 데다 학군이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것도 전세가격 상승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는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보다 보증금을 낀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주는 지난달 현재 임대차계약 가운데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51.1%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반면 전세와 순수 월세의 비중은 각각 37.5%, 11.4%에 그쳤다.

이는 전국의 보증부 월세 비중(39.5%)은 물론, ▲서울(37.4%) ▲부산(37.3%) ▲대구(42.4%) ▲인천(43.4%) ▲대전(39.8%) ▲울산(33.4%) 등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을 마련한 뒤에도 매달 현금을 월세로 내야한다는 점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정여희 호남지사장은 "최근 광주 주택시장은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통적인 전세 강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남구를 제외하고는 소형 평형의 매매나 전세 거래가 간간히 이뤄지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될 만큼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수축산물과 혼수용품 등을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각화동 종합상가가 지난 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수축산물·잡화·혼수용품까지 원스톱 쇼핑 광주 각화동에 종합유통센터 오픈

각종 농수축산물을 원스톱 쇼핑할 수 있는 각화동 종합상가(대표 김재중·광주시 북구 각화동)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각화동 종합상가는 농수축산물 유통업은 물론 각종 잡화, 혼수용품까지 갖춰 농산물뿐만 아니라 인근의 농산물도매

시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광주 최고의 유통타운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상가면적 7천475㎡(2천261평)에 3층 규모로 지어진 종합상가는 모두 74칸의 점포로 구성됐다. 1층(34칸)에는 수산·축산물 상가, 무농약 및 유기농 상가, 전문

정갈류상가, 식재료 및 공산품 상가 등이 들어서며 2층은 식당가와 편의시설로 채워졌다. 3층은 관리사무소등으로 활용되며 1층 주차장은 동시에 62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다. 김재중 대표는 "값싸고 수준높은 상품들을 판매해 고객과 산지 농어업인, 상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종합상가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 광주 최대 규모의 유통센터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현대차 노사 오늘 본교섭 재개

4~5일 파업 유보... 막판 조율 나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후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아온 현대자동차의 노사가 3일 본교섭을 재개한다. 노조가 본교섭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업까지 일시 유보해 노사가 파업 전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급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해 24일 제10차 본교섭에서 노조의 협상결렬 선언 후 10일만에 본교섭을 재개하게 됐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회사에도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오는 4일과 5일은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노사는 3일 본교섭에서 막판 타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5일까지 협상 마감일도 보고 끝까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원래 중앙노동위원회의 노

동쟁의 조정기간(10일)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0차 본교섭에서 현대차 노사협상 역사상 유례없이 임

기아차 '비정규직 사태' 해결

화성공장 오늘부터 정상 가동
노조가 '점거농성 풀라' 설득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조(협력업체 근로자)의 점거 농성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생산이 전면 중단됐던 화성공장이 3일부터 정상 가동된다고 2일 밝혔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근무중인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그동안 도급업체 사장단과 기아차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도장라인을 점거, 파업을 벌여왔다.

이로써 기아차는 지난달 30일 노사

금 7만8천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 동종업계의 입단협 타결수준을 상회한 첫 임금제 시안을 냈지만 노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협상결렬을 선언했으며, 지난달 31일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한남부표에서는 62.95% 찬성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양측의 임금협상 조인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0시부터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농성이 완전 종결됨에 따라 올해 노사현안을 마무리지었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화성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 점거농성 해결에는 기아차 노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점거 농성으로 생산중단이 장기화되자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8일 불법 점거농성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사흘 뒤인 지난달 31일 기아차 노조 집행부 전원이 점거현장을 방문,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의 도장공장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종태기자 jilee@

현대·기아차 700명 공채

현대·기아차는 연구개발, 일반사무, 국내영업 및 애프터서비스(A/S) 등 전 부문에서 2007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700여명을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공동 채용하던 기존과 달리 각사에 필요한 역할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양사 독자 채용 방식'을 채택했다.

접수는 3~17일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motor.com)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kr)를 통해 이뤄지며, 2008년도 2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석·박사 포함)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 4차 신체검사 순으로 이뤄지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10월중 현대차 및 기아차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통지된다. 이번 채용과 관련, 현대·기아차는 3일부터 전국 각 대학을 방문해 채용 설명회 및 상담을 실시한다. /이종태기자 jilee@

FTA 대비,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 근거 마련 품목·계절별 농업통계 바꾼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관련 통계체계가 크게 바뀐다.

농림부는 지난 1월 이후 통계 생산·활용부서 의견을 듣고 내부 토론도 거쳐 '중장기 농업통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번 개편은 FTA 대책에 사용될 생산액·생산비 등의 통계를 정비하고, 농가 유형별 통계를 확보함으로써 맞춤형 농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액을 추계할 때 일부 주요 농산물의 경우 가격의 품목·계절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경역비 외에 자기자본이익율이나 자기토지용역비 등을 통해 생산비를 구하고 순수임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가축통계에서는 생산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오리가 2009년부터 조사 항목에 추가된다.

지금까지 각 품목의 단위 면적당 소수인(총생산액) 위주로 집계됐던 품목별 소득통계도 2012년부터 경영체별 품목 소득조사로 전환된다. 가구별 소득통계 역시 전지면적 0.3ha 미만의 자급농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영농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영체 소득통계로 대체된다. /연합뉴스

지방국세청 감사관·감찰계장 내부 공모 삼성증권 목표점 신설

국세청이 내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청에 근무할 감사관과 감찰계장을 임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감사관 응모자격은 서울청·중부청의 경우 서기관을, 광주·부산·대전·대구 등 4개 지방청은 사무관을 대상으로 했고 감찰계장은 지방청 및 일선 세무소 계장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본청 감사관실을 통해

응모한 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이뤄질 과·계장급 전보인사에 맞춰 지방청별로 임명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감사관 등을 내부 공모로 임명한 적이 있다"면서 "투명한 국제행정과 관련, 국제청이 감찰·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증권(사장 배호원)은 3일 전국 87번째 점포인 Fn Honors 목포 Branch를 목포시 상동 국민은행 2층에 신설했다.

목포 Branch는 330㎡(100여평) 규모에 6명의 인원이 상주, 목포를 비롯한 인근 도시민에 대한 삼성증권의 선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템갤러리

RODEM 식수업 발달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특별기획상품경매

인기상품 30%~최고50%

S the 1 요리학원 大특강 개강

* 인기 카빙(carving) 과일포장장식·스시(초밥)수업경모집 *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베이커리(빵) 10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5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3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2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1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10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5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3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2시간 수업
- 베이커리(빵) 1시간 수업

S the 1 요리학원 (062) 385-0723~4